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589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8월 2일(음력 7월 9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29

들이고 내는 모든 것을 자기 내공에 놓으라

왜 백종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지?

문 한마음선원은 모든 것을 자신의 근본 하나로 돌려서 자기를 밝히는 공부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의식을 할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장 정근을 해서 지장보살을 찾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그래도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천도재를 지내고 당대의 부모뿐 아니라 조상들을 위해서 백종과 같은 절차가 치러야 하는지요? 이 마음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론과 실제가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 우리 대중이 돌아가는데 한 회사가 돌아가든지 한 나라가 돌아가든지, 공해서 같이 돌아가긴 하는데 같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쪽 소임을 맡고 이 사람은 여기 소임을 맡아야 하고 소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이걸 하나로 동글게 돌아가는 동시에 이거는 이것대로 소임을 맡고 이거 이것대로 소임을 맡고 다 소임을 맡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바닷물에는 주해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거기 소임을 맡고, 또 산에는 주산신이라는 이름을 맡고, 다 보살이 책임을 맡는 거예요. 또 주립신이라는 이름을 맡아 가지고 온갖 나무와 풀들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다 합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마음은 다 이렇게 똑같지만, 근본은 똑같지만 마음을 부리는 것은 다 각각이랑 애깁니다.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전부 마음을 내서 부리는 것은 다 각각이랑 애깁니다. 그렇듯이 지장은 지장, 관세음은 관세음, 이렇게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장이라는 것도 그 소임을 맡았기 때문에 지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20개든지, 12개든지 소임을 맡은 이름이 지장이다 관세음이다 칠성이다 뭐, 산신이다 해신이다 이렇게 모두 이름을 붙여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부리려면 "아무개야!" 하고 불러야 되죠? 아,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주옥 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려면 "누구야!" 하고 그 소임자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장 정근을 할 때는 그 소임을 맡아 가지고 하는 그 이름을 불러야, 이게 자기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고 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감독이면 그 감독 이름을 불러야 하고, 직원이면 직원 이름을 불러야 대답을 하고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루뭉술리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또는 산신보살 또 해신보살 또 주립보살, 그냥 수 없이 많죠. 자신, 이런 것도 다 거기 속해서 소임을 맡아 가지고 주옥 있는데 그 소임 맡은 대로 이름을 붙여 놓는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 붙여 놓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 소임 맡은 사람을 불러야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보이는 데서 하는 일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데서 보살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름을 안 불러요? 알지도 못하고 뛰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잘 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교가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된 겁니다. 이게 원래 불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교가 그냥 체인지가 돼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불교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주교라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믿어서 그렇지 이게 안으로만 믿는다면 진짜로 최고란 얘기죠. 이렇게 미사를 드리고 할 때에 자기 영혼을 불러 주고 영혼에 그 모든 것에 혜택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유교에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더 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안으로 하질 않기 때문에 맞겨져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주님' 하고 바깥으로 찾지 때문에, 그런데 형식은 미사를 드리고 꽃하고 뭐 이렇게만 하고선 그냥 지내는데, 원칙은 그게 맞는 거예요. 형식은, 근데 진짜 이 안에서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상은 왜 차리는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가 물주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주머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물주머니 안에서는 상 차려서 먹고 뭐 반찬 통 싸고 먹고 통

싸고 잡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모두 습관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지금 상을 차려 놓고 하는 거까지 습관이 돼 버렸죠. 오히려 습관을 만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이 주머니에서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을 차려 놓고 선 영가를 불러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주머니를 벗어나면 먹고 통 싸고 하는 것도 다 그냥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어서도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관습이 더 생겨서 여기

요,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를 자기가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다는 얘깁니다. 비이삭도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사람이 권리가 많아질수록 고개가 숙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야만이 더 지혜롭고 더 풍부해지고 전체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서 정화돼서, 하다못해 요만한 발레, 요만한 풀 한 포기라도 남김없이 다 먹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청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차원하고 또 다르죠. 불성은 같지만. 그러니까 아주 천차만별로 차원이 다르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몽땅 쥐어서 이 불성이 똑같으니까, 개미나 풀의 생명이나 꽃의 생명이나 똑같은데까 전부 깨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그 생명들을 다 한데 합쳐서 꽃꽃이를 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꽃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꽃을 맘대로 꽃을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꽃꽃이라면,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꽃과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꽃송이를 다 한데 묶어서 한번 꽃꽃이를 해 보세요. 꽃꽃이를 해 보시면, 이

이 들어서 선지식이 돼 버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 길잡이를 잘 만나야 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자주 틈내서 집에 다니면서 공부해 나가세요. 자기가 번소에 가면 번소도 법당이 될 수 있고요, 자기 이 몸품이도 법당이 될 수 있어요, 축소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없다면 그게 우주가 뭐고 부처가 뭔지, 고가 뭐고 낙이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예요. 이게 방편이지 원인이고, 원인이자 실상입니다. 그러니 공부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하게만 해 나가세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문 집에 다니면서 영가 천도에 대해서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터넷에서 '포르투갈 귀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살아서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시며, 만약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죽는 곳에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어 놓고서야 벗어나는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그러니까 지금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영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차원에 따라서, 즉 영체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내가 맘대로 자유롭게 못하는 영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체라는 것은 죽었으면서도 산 사람한테 매달려 다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그냥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는 유령으로 그저 돌아다니는, 어느 사람에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데든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붙어 돌아다니는 그런 유령이 있고, 또 악령, 이거는 자기의 인연에 따라서 그냥 다니면서 자기는, 얼른 쉽게 말해서 구더기가 똥이 있어야 그 배를 채우듯이 그 악령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게 우리가 볼 때 악령이지 그 악령으로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는 악령이 따로 없고 유령이 따로 없고, 유체가 따로 없고 영체가 따로 없고, 심체가 따로 없다. 즉 불성이 따로 없어요 소리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그 실상의 주인공에 의해서만 천도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항상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년까지 억겁을 거쳐 오면서 생각하고 창조되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설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 우리가 한생각을 내서 코드 갖는 거와 같디 이겁니다. 전기를 들어오게 하고 또 빼기도 하듯이, 또 저 문을 열고 닫듯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천도를 한다' 이런면 향한 개비하고 물 한 그릇 떠 놓으면 세상만사가 편안하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이 공부를 해서 마음이 아주 깨끗해진 사람에 한해서는 향한 개비나 또는 물 한 그릇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형식이 불과하죠. 내 마음에 영원토록 흐르고 있는 물이 있으며 영원토록 켜 두고 있는, 즉 말하자면 자가발전소가 있으면 즉, 촛불이 있다 이 소립니다. 또 향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에, 먹은 사이 없이 항상 충족한 걸 말하는 겁니다. 연기를 말하는 거죠. 연기, 즉 능력!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가들의 양식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향을 피우는 것은 이쪽 사람의, 즉 말하자면 자비의 보시 있었습니까? 그런 에너지들, 마음을 내면 그 에너지가 모든 데 향처럼 그 능력의 빛이 그렇게 퍼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향이라고 우리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사람이 살고 죽는 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 마음의 도리밖에는 없어요!

서 조상들을 더 곱잡 못하게 만드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바깥으로 벗어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딱 하나 이렇게, 이 딱은 이름 그대로 우주떡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이 빵떡은 되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방편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해 놓고 과일이나 놓고 꽃이나 놓고 향, 초, 그리고 물 한 그릇은 이런 다기 그릇에, 요만한 작은 그릇에 놓지 말고 큰 그릇에 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천도할 때는 또 딱 그릇에, 큰 그릇에다 놔라. 이런 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재를 지내는데 우주떡 하나에다가 과일 세 가지를 한 접시에다가 놓고 향, 초, 흰 꽃, 위패하고 천후론 쓰고 큰 그릇에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것도 없어도 되는데 방편이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안 해 주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건 자손들에게 교훈도 주고 조상의 은혜도 알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은 삼훈(三魂)이 항상,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게끔 돼 있어요. 근데 조상이 물라요? 보이지만 앓을 뿐입니다. 아아 '이 패심한 놈!' 그러면 뒤돌아서서 후처후처 갈 거예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문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한데 절에 가서 스님들께 "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절에 간 색사만 소리 듣지도 못했는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놓고 스님들 말씀처럼 해 나가게 되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화식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은 더욱 공부가 어려워요.

답 이거 봐요. 바람이 불어서 만약에 갈대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당신이 갈대라면 흔들리겠지만 갈대가 아니라 어떠한 폭풍이 친다 해도 그 뿌리가 패어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무가 된다면, 장마가 들어도 괜찮아요.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는 건 스님들한테 스님이 아니든 똑같습니다.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좀 다르다고 볼까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한데로 돌아가고 불성은 유생 무생이나 축생들의 불성이나 다 똑같지만 그 생각하는 차원에 따라서는 막이, 약간의 막이 있죠. 왜냐하면 집승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차원이 다르죠. 불성은 같지만, 즉 생명은 같지만 말입니다. 개미라는 그 생명은 똑같지만 차원이 낮죠. 아주 짙이 낮죠. 뱀이라는 차원도

꽃잎이 속에는 천차만별로 돼 있는 꽃이 너무나 가짓수가 많은데도 나쁜 것 좋은 것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 조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의 유생 무생들, 전체 산천초목, 모든 물에 있는 가지가지의 그 생명들을 꽃으로 생각하고 한데 한번 묶어 보면 아주 찬란한 조화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기같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거지만, 이런 무너지는 거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능력 있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연기를 두 가지로 사용하죠? 연기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능력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속세에서 연기를 쓰는 것은 허망한 것, 흩어지는 것 이런 것이 구름과 같이 흩어진다 해서 연기에 비유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이 차원이 아주 낮은, 그냥 이렇게 볼 때서 나오는 그런 차원의 연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라는 건 이 능력으로 인해 갖은 각색의 꽃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연기 말입니다. 그렇게 조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라고 그렇게 못할 바가 없죠. 다 코 달리고 눈도 달리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달렸잖아요. 만약에 역적의 집에 가서 고공(僮工)을 살면 역적이 되는 거고, 선지식의 집에 가서 살면 그 사람도 물이 들고 배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가 물들지 않으려야 안 들 수가 없이 그만 물